

대학생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전위공격성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억제의 매개효과*

이 재 필¹⁾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 석사

최 가 희^{2)†}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 교수

본 연구는 대학생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전위공격성의 관계를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억제가 순차매개하는지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대학생 58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안정 성인애착은 전위공격성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내면화된 수치심은 불안정 성인애착과 분노억제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불안정 성인애착과 전위공격성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불안정 성인애착과 전위공격성의 관계를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억제가 순차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안정 성인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억제를 통하여 전위공격성을 보이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위공격성을 보이는 내담자와 상담할 때 내담자가 자신에 대해 가지는 부정적인 평가를 탐색하고 완화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분노 억제와 폭발의 악순환을 경험하는 내담자가 상담장면에서 자신의 분노를 충분히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돋는 개입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요어 : 불안정 성인애착,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억제, 전위공격성, 순차매개효과

* 본 연구는 이재필(2021)의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대학생의 성인애착이 전위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억제의 매개효과’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최가희, 계명대학교,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Tel : 053-580-5381, E-mail : choigh@kmu.ac.kr

2018년 10월, PC방 아르바이트생의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흥기를 휘둘러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윤진우, 2020). 이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를바 ‘묻지마 범죄’라 불리며 사회의 주목을 받았다(임명수, 2021). 묻지마 범죄는 무고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2013년 54건, 2016년 57건, 2017년 50건, 2018년 상반기까지 31건 등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신종철, 2018; 임혜은, 한세영, 2016).

묻지마 범죄만큼 심각하고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공격성이 엉뚱한 대상에게 표출되는 현상은 생각보다 보편적으로 일어난다. 교수의 비판으로 화가 난 학생이 설거지하지 않은 가족에게 불같이 화를 내는 경우나 파트너와 다툼 후 짓어대는 강아지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것 등이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공격성의 혼란 예이다(박보람, 2017; 서민재, 박기환, 2013; Dollard, Doob, Miller, Mowrer, & Sears, 1939; Slotter, Grom, & Tervo-Clemmens, 2020). 이러한 예시는 해결되지 않은 공격성이 엉뚱한 대상에게 전위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Dollard 등 (1939)은 분노를 유발한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라 무고한 다른 대상에게 보이는 공격성을 ‘전위공격성(displaced aggression)’이라 정의하였다. 전위공격성은 여타의 공격성과 달리 투쟁이 아닌 도피 반응과 관련된다(Denson, Pedersen, & Miller, 2006). 즉, 혐오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선 도피한 후 해소되지 못한 부정적 감정을 지속적으로 반추하여 마음 속에 담아두었다가 엉뚱한 곳으로 표출하여 전

위공격성이 발생하는 것이다(Miller, Pedersen, Earleywine, & Pollock, 2003; Spielberger, Krasner, & Solomon, 1988).

전위공격성 발생 시 피해자는 신체적, 심리적 외상을 주로 경험하는 반면,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전위공격성은 심리적인 특성을 가진다(이하나, 2009; Tangney, 1998). 따라서 전위공격성의 예방 및 개입을 위해서는 그 심리 내적인 과정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수적일 것이다. 관련하여 전위공격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전위공격성은 거부민감성(금다정, 정은정, 2020; 박보람, 2017; 임유빈, 한유진, 2021; 임혜은, 한세영, 2016), 심리적 안녕감(서민재, 박기환, 2013), 우울(이나영, 하수홍, 장문선, 2017; 황선주, 박기환, 2014), 내현적 자기애(신주애, 조한익, 2019; 신현경, 이승연, 2016), 자아존중감(서민재, 박기환, 2013; 황선주, 박기환, 2014) 등과 같이 개인의 심리 내적 특성들과 관련되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는 전위공격성이 역기능적 대인관계 패턴 및 부적응적인 정서와 관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위공격성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역기능적 대인관계 패턴의 역할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탐색하고자 최근 애착이 전위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곽도희, 2018; Slotter et al., 2020). 애착(attachment)이란 유아가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아는 양육자와의 정서적 유대 경험을 내면화하고 자기와 타인에 대한 정신적 표상인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형성하게 된다. 내적작동모델은 이후 성인이 되어서까지 타인과의 정서적 유대감과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Bowlby, 1973). 이때 개인이 정서적 학대로 인하여 주 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했을 경우, 그나마 존재하는 양육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전략을 학습하게 된다(Kairys & Johnson, 2002). 이처럼 아동기에 형성된 불안정 애착과 감정 억제 전략으로 인하여 개인은 부정적 정서를 마음속에 쌓아두고, 감정이 통제하기 힘든 지점에 이르러서야 과도하게 분출하는 부적응적인 행동을 하며(Finkel, 2014), 무관한 사람에게까지 공격성을 표출하는 전위공격성을 보이게 된다(곽도희, 2018; 이나영 등, 2017; 정익중, 이지언, 2012; 최영, 김현수, 2018; Slotter et al., 2020).

성인애착과 전위공격성의 관계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차원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Slotter와 동료들(2020)은 애착불안과 자기 통제력을 독립변인으로, 전위공격성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애착불안이 높고 자기 통제력이 높은 개인은 파트너를 대할 때 파트너가 떠나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공격 충동을 참게 되고 전위공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도희(2018)의 연구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통하여 부모의 정서적 학대가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에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전위공격성 가능성을 높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연구는 공통적으로 애착불안이 전위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애착회피에 대해서는 곽도희(2018)의 결과와 달리, 애착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친밀함에 불편감을 느끼고 독립과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고자 하여 전위공격성과 관련이 없다는 결과 또한 존재한다(Finkel, Burnette, & Scissors, 2007; Slotter et al., 2020).

이는 애착회피와 전위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일관된 합의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비일관적인 결과는 애착과 전위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상당히 소수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와 전위공격성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변인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여 기존의 연구에 경험적인 증거를 더하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불안정 애착 수준이 높은 성인이 전위공격성에 이르게 되는 내적인 과정은 무엇일까? 불안정한 초기관계를 형성한 경우 감정억제전략을 사용하여 전위공격성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분노억제가 의미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가정해볼 수 있다(Miller & Marcus-Newhall, 1997). 분노는 인생 초기부터 경험하는 기본적 정서로(Lewis, Alessandri, & Sullivan, 1990), 분노를 경험하더라도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에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Bowlby(1973)는 내적작동 모델이 분노 표현 방식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제시하였고, Mikulincer(1998)는 양육자가 감정교류 과정에서 유아의 분노를 적절히 인정하고 수용해주면 유아 또한 분노를 경험하면서도 기능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고 하였다. 반면, 분노를 경험하더라도 양육자에게 이를 수용 받지 못하면 분노 감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내 분노를 충동적으로 표출하거나 분노 자체를 회피, 억제하는 역기능적인 분노표현방식을 익히게 된다고 하였다(전혜경, 2014).

분노표현방식은 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통제의 세 가지 방식으로 분류된다(Spielberger et al., 1988). 분노표출은 분노를 여과하지 않고 그대로 표현하는 방식인 반면, 분노억제는 분

노 자체를 부정, 회피하거나 억제하는 표현 방식으로, 두 가지 방식은 모두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야기하는 역기능적 분노표현방식으로 분류된다(전겸구, 한덕웅, 이장호, 1997; Spielberger et al., 1988; Spielberger, Reheiser, & Sydeman, 1995). 분노통제는 스스로 분노를 잘 인식하고 이를 적절히 조절, 통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해소하고 건강하게 유지한다는 점에서 기능적 표현 방식으로 분류된다(Spielberger et al., 1988; Spielberger et al., 1995). 이때 분노억제는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 화를 피하거나 참아내는 방식을 의미하므로, 감정을 억압하다 더는 통제하지 못할 때 사소한 촉발 자극으로 폭발되는 전위공격성의 선행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Bushman, Bonacci, Pedersen, & Vasquez, 2005).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당수의 연구는 분노억제와 전위공격성의 관련성을 보고하며 분노억제와 전위공격성의 관계를 확인하였다(이나영 등, 2017; 이하나, 2009; 황선주, 박기환, 2014; 황지연, 연규진, 2018; Berkowitz, 1990; Miller et al., 2003; Spielberger et al., 1995; Tangney, Wagner, Hill-Barlow, Marschall, & Gramzow, 1996).

불안정 애착과 분노억제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두 변인의 정적인 관계를 밝히고 있다. Meesters와 Muris(2002)는 불안정 애착이 높은 집단이 안정애착 집단에 비해 분노와 적대감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Mikulincer, Shaver와 Perge(2003)는 불안정 애착 수준이 높은 경우 안정애착에 비해 분노를 내재화하는 분노억제의 경향성이 높을 것이라고 이론화하였다. 또한, 문소현과 안효자(2012)가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애착 집단 간 분노표현 방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안정형 애착

집단에 비해 불안정형 애착집단의 분노억제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불안정 애착집단이 분노억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해진, 신현균, 홍창희(2008) 또한 애착유형별 분노표현방식의 차이 검증을 실시하여 두려움형 애착집단이 안정형 애착집단에 비해 분노억제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더불어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한 다수의 선행연구 또한 불안정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를 억제하는 경향이 높다고 제시하고 있다(김용희, 2017; 이지영, 손정락, 2009; 전혜경, 2014; 최수정, 이동훈, 2019). 이와 같은 선행 연구에 기반하여 불안정 성인애착과 분노억제, 전위공격성 간의 관계를 종합하면, 불안적 성인애착을 가진 개인은 분노를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여 자신의 감정을 억제, 회피하는 방식을 택하게 됨으로써 전위공격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분노억제가 불안정 성인애착과 전위공격성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보고 분노억제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노억제의 매개효과에 더해, 본 연구는 전위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내적 과정으로 내면화된 수치심에 주목하였다. 내면화된 수치심은 자기(self)에 대한 부적절하고 무가치한 느낌을 전반적인 정체성으로 내면화한 감정을 의미하는 것으로(강미애, 2016; 김용태, 2010; 이인숙, 최해림, 2005; Cook, 2001; Lewis, 1971), 내면화된 수치심은 애착과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비일관적인 보살핌을 받거나, 거부나 무시, 정서적 학대 등 건강하지 않은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개인은 세상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해서도 부정적 표상을 형성하여 부정적인 정서를 내면화하고 결핍감,

열등감, 부적절감, 외로움, 수치심 등을 경험하게 된다(Bowlby, 1973; Collins & Read, 1990; Cook, 1987; Cook, 1991; Gilbert, Allan, & Goss, 1996; Leary, Koch, & Hechenbleikner, 2001). 애착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는 다수의 연구에서 검증되었으며, 선행연구는 양육자와의 부정적인 관계 경험이 스스로에 대한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내면화된 수치심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이연규, 최한나, 2013; 조영희, 정남운, 2016; Gross & Hansen, 2000; Lopez et al., 1997).

내면화된 수치심은 애착뿐 아니라 분노억제나 전위공격성과도 관련되는 변인으로 연구되고 있다. 상당수의 선행 연구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억제를 매개모형에 포함하여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미림, 홍혜영, 2013; 김현주, 이정윤, 2011; 신선지, 백용매, 2017; 이진, 송미경, 2017; 임정우, 홍혜영, 2016; 정해숙, 정남운, 2011; 조영희, 정남운, 2016). 이러한 현상에 대해, Tangney, Wagner, Fletcher와 Gramzow(1992)는 수치심을 내면화한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시, 거부, 비난, 배제를 받는 등 수치심 유발 상황에 처하면, 외부 탓을 하며 분노 및 적대감을 경험하는 동시에 분노를 표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평가나

비판을 두려워하여 분노를 억제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더불어, 수치심을 내면화한 개인은 자신을 약하고 무력한 존재로 생각해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관계-회피적 특성을 가지게 되거나(Vujanović et al., 2013), 전위공격성과 같은 부적응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류혜진, 백승화, 2020; 임혜은, 한세영, 2016; Joireman, 2004; Tangney, 1992). 황지연과 연규진(2018)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내면화된 수치심과 전위공격성의 관계에서 분노억제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으며, 내면화된 수치심 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은 자기방어적인 분노 감정을 경험하지만 분노 감정을 적절히 다루지 못하여 전위공격성을 보이게 된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억제에 선행하는 요인으로써, 불안정 성인애착과 전위공격성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불안정 성인애착과 전위공격성의 관계를 분노억제와 함께 내면화된 수치심이 매개할 것으로 보았으며, 그림 1과 같이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억제가 순차적으로 불안정 성인애착과 전위공격성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성인애착과 분노억제의 관계를 내면화된 수치심이 완전매개했다는 선행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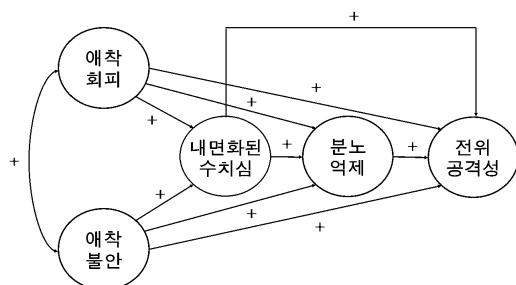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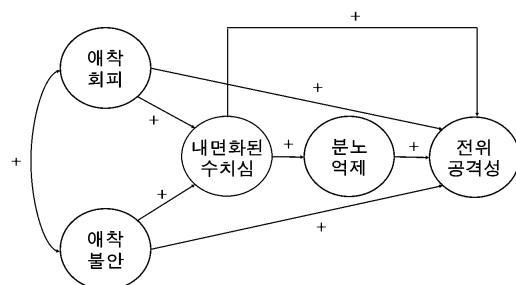


그림 2. 경쟁모형

구에 근거하여(김현주, 이정윤, 2011; 조영희, 정남운, 2016), 본 연구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불안정 성인애착과 분노억제 사이를 완전매개하는 경쟁모형(그림 2)을 설정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애착불안과 전위공격성의 관계를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억제가 순차매개하는가?

연구문제 2. 애착회피와 전위공격성의 관계를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억제가 순차매개하는가?

방 법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소속 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No. 40525-202005-HR-017)의 승인을 받은 후, 전국 대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 및 연구 참여에 따르는 혜택 및 부작용, 연구자료의 보관 등에 대한 정보가 설명되었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학생만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자 600명 중 참여 대상이 아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9명의 응답은 제외되었고, 총 581명의 응답이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남성이 29.1%(169명), 여성이 70.9%(412명)였으며, 학년은 1학년 8.6%(50명), 2학년 25.3%(147명), 3학년 23.7%(138명), 4학년 26.9%(156명), 기타 15.5%(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소재지는 서울/인천/경기/강원

51.3%(298명), 대구/경북 20.7%(120명), 대전/충청/세종 10.7%(62명), 부산/울산/경남/제주 10.5%(61명), 광주/전남/전북 6.2%(36명), 기타 0.6%(4명)로 나타났으며, 참여자의 연령은 만 18세에서 29세, 평균연령은 23.47세였다.

측정 도구

불안정 성인애착

불안정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Brennan, Clark와 Shaver(1998)가 개발한 친밀관계경험척도(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Scale: ECRS)를 문형준(2007)이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ECRS는 애착회피과 애착불안의 두 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된다. 애착불안(attachment anxiety)은 관계에서 거부당하거나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관계에 몰입하고 지속적으로 사랑을 확인하고자 하는 특징과 관련되는 반면, 애착회피(attachment avoidance)는 타인이 친밀하게 다가올 때 불편함을 느끼고 힘든 상황에서도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거리를 두며 스스로 해결하려는 특징과 관련된다. ECRS는 애착불안을 측정하는 18문항(예: “파트너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걱정 한다”)과 애착회피를 측정하는 18문항(예: “내가 마음속 깊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파트너에게 드러내지 않는 편이다”)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7점 Likert 척도(1=전혀 아니다, 7=항상 그렇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및 회피애착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Brennan 등(1998)의 연구에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내적 합치도는 회피차원 .94, 불안차원 .91, 전체 .8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형준(2007)의 연구에서는 전체 .87, 애착회피 .90, 애착불안 .8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전체 .89, 애착회피 .86, 애착불안 .91이었다.

내면화된 수치심

내면화된 수치심을 측정하기 위하여, Cook(1987)이 개발한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nternalized Shame Scale: ISS)를 이인숙과 최해림(2005)이 번역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SS)는 부적절감 10 문항(예: “나는 스스로 꽤 웬찮다고 느낀 적이 없다”), 실수불안 4문항(예: “다른 사람들이 내 결점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자기처벌 5문항(예: “나는 완벽을 추구하지만 늘 부족함을 볼 뿐이다”), 공허 5문항(예: “나는 내 신체와 감정에 대한 통제감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응답 편향을 줄이기 위해 Rosenberg 자존감 척도에서 가져온 자존감 6문항의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 분석 시에는 자존감 척도는 제외하고 나머지 24문항을 사용한다.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전혀 경험하지 않는다, 5=거의 항상 경험한다)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ISS의 총점이 50점 이상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도의 고통스러운 수치심’을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Cook, 1987). 본 연구에서는 자신에 대해 경험하는 수치심에 집중하고자 부적절감, 자기처벌, 공허 하위요인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인숙과 최해림(2005)의 연구에서 ISS의 내적 합치도는 전체 .90, 부적절감 .91, 공허 .87, 자기처벌 .80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전체 .94, 부적절감 .90, 자기처벌 .77, 공허 .86이었다.

분노 억제

분노억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Spielberger 등(1988)이 개발한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

(STAXI: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를 전경구 등(1997)이 번역 및 타당화한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XI-K: Korean Adaptation of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STAXI-K는 분노조절(anger-control), 분노표출(anger-out), 분노억제(anger-in)로 구성되며, 본 연구에서는 분노억제 요인을 사용하였다. 분노억제는 8문항(예: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는 않으나, 안으로 앙심을 품는 경향이 있다”)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점 Likert 척도(1=전혀 아니다, 4=항상 그렇다)로 평정한다. 전경구와 김교현(1997)의 연구에서 분노억제의 내적 합치도는 .7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78로 나타났다.

전위공격성

전위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Denson, Pedersen과 Miller(2006)가 개발한 전위된 공격성 척도(DAQ: Displaced Aggression Questionnaire)를 이하나(2009)가 번역 및 타당화한 한국판 전위공격성 척도(DAQ-K: Displaced Aggression Questionnaire-Korean version)를 사용하였다. DAQ-K는 공격행동 9문항(예: “나는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가 나를 화나게 하면 그 화풀이를 다른 사람에게 하는 편이다”), 분노반응 10문항(예: “나는 나를 화나게 했던 일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생각한다”), 보복계획 8문항(예: “만일 누군가가 나를 해치면, 내가 보복할 수 있을 때까지는 마음이 편하지 않다”) 등 총 27문항으로 구성된다. 문항 측정은 7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높은 점수는 높은 수준의 전위공격성을 의미한다. 이하나(2009)의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전체 .95, 전위된

공격행동 .93, 분노반추 .95, 보복계획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전체 .95, 전위된 공격행동 .93, 분노반추 .92, 보복계획 .91이었다.

자료분석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AMO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척도의 내적 합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으며, 각 변인들의 정규성 검증을 위하여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하였다. 셋째,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넷째,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2단계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 모형을 분석하였다. 1단계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변인의 타당성을 확인하였고, 2단계에서는 성인애착과 전위공격성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억제의 순차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Structu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인들 간 구조적 관계를 보다 잘 설명하는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설정하였고,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비교를 위해 카이자승 차이검정을 사용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000개의 표본을 재생성하여 95% 신뢰구간에서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결 과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애착회피는 내면화된 수치심($r=.340, p<.001$), 분노억제($r=.248, p<.001$), 전위공격성($r=.217, p<.001$)과

표 1.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N=581$)

구분	1	2	3	4	5
1. 애착회피	1				
2. 애착불안	.191***	1			
3. 내면화된 수치심	.340***	.657***	1		
4. 분노억제	.248***	.451***	.660***	1	
5. 전위공격성	.217***	.644***	.736***	.621***	1
평균	64.39	71.90	44.02	20.13	99.41
표준편차	15.02	18.49	19.37	4.79	31.52
왜도	-0.288	-0.376	-0.203	-0.381	-0.215
첨도	-0.063	-0.312	-0.828	-0.166	-0.822

*** $p<.001$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애착불안은 내면화된 수치심($r=.657, p<.001$), 분노억제($r=.451, p<.001$), 전위공격성($r=.644,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내면화된 수치심은 분노억제($r=.660, p<.001$), 전위공격성($r=.736,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분노억제는 전위공격성($r=.621,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각 변인의 왜도, 첨도가 모두 2와 7 미만으로 나타났으므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West, Finch, &

Curran, 1995). 변인 간 기술 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 중 애착회피, 애착불안, 분노억제는 단일 변인으로 측정되었으므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 3개의 문항꾸러미를 제작하였다(Russell, Kahn, Spoth, & Altmaier, 1998). 문항꾸러미 제작을 위해 탐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N=581$)

모형	χ^2	df	CFI	TLI	SRMR	RMSEA
측정모형	318.950	80	.962	.950	.042	.072(.064~.080)

표 3. 측정변인의 경로계수

잠재변수		측정변수	B	β	S.E.	C.R.
애착회피	→	회피1	1.000	.861		
	→	회피2	1.050	.873	.040	26.539***
	→	회피3	10.65	.891	.039	27.143***
애착불안	→	불안1	1.000	.870		
	→	불안2	.959	.861	.036	26.628***
	→	불안3	1.011	.880	.037	27.524***
내면화된 수치심	→	부적절감	1.000	.896		
	→	자기처벌	.988	.873	.033	29.873***
	→	공허	1.111	.884	.036	30.666***
분노억제	→	억제1	1.000	.773		
	→	억제2	1.040	.796	.058	17.965***
	→	억제3	1.047	.728	.063	16.643***
전위공격성	→	전위된 공격행동	1.000	.789		
	→	분노반추	.913	.746	.049	18.655***
	→	보복계획	1.108	.857	.051	21.820***

*** $p<.001$

색적 요인분석에서 요인의 수를 1로 고정하고, 최대우도법, 베리맥스 회전법을 사용하여 요인부하량을 확인한 후, 요인 알고리즘(factorial algorithm) 방법을 사용하여 요인부하량이 큰 문항, 작은 문항을 고르게 배정함으로써 잠재변인의 측정변인들이 동일한 부하량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듯이, $\chi^2(80)=318.950(p<.001)$; CFI=.962; TLI=.950; SRMR=.042; RMSEA=.072(90% 신뢰구간=.064~.080)로 나타났다. CFI와 TLI가 .95 이상이며, RMSEA가 .072로 보통 정도로 나타나, 측정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한 측정변인들의 요인부하량이 모든 경로에서 .70 이상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5개의 잠재변인을 구인하기 위해 15개의 측정변인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측정변인의 경로계수는 표 3에 제시하였다.

구조모형 분석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김현주, 이정윤, 2011; 조영희, 정남운, 2016; Tangney, 1992; Tangney et al., 1992)에 근거하여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설정하고 각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후 최종모형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χ^2 차이검

증, RMSEA, CFI, TLI, SRMR을 비교한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chi^2(80)=318.950$, $p<.001$; CFI=.962; TLI=.950; SRMR=.042; RMSEA=.072(90% 신뢰구간=.064~.080)와 경쟁모형의 적합도($\chi^2(82)=313.867$, $p<.001$; CFI=.962; TLI=.952; SRMR=.042; RMSEA=.070(90% 신뢰구간=.062~.078)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및 모형 차이 검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이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최종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χ^2 의 차이검증에서 자유도가 2 차이가 날 경우, 5.99 이상의 차이를 보일 때 모형이 유의하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자유도의 차가 2, χ^2 값 변화량이 .026이므로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모형이 선행연구의 이론을 더 잘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χ^2 값에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 보다 간명한 모형을 선택하라는 배병렬(2017)의 제안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경쟁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최종모형 분석

본 연구의 최종모형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과, 애착회피에서 전위공격성의 경로계수는 $-.074(p<.05)$, 애착불안에서 전위공격성의 경로계수는 $.273(p<.001)$ 으로 나타났다. 애착회피에

표 4.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N=581$)

모형	χ^2	df	$\Delta\chi^2$	CFI	TLI	SRMR	RMSEA
연구모형	318.950	80		.962	.950	.0421	.072(.064~.080)
경쟁모형	318.976	82	0.026	.962	.951	.0422	.071(.063~.0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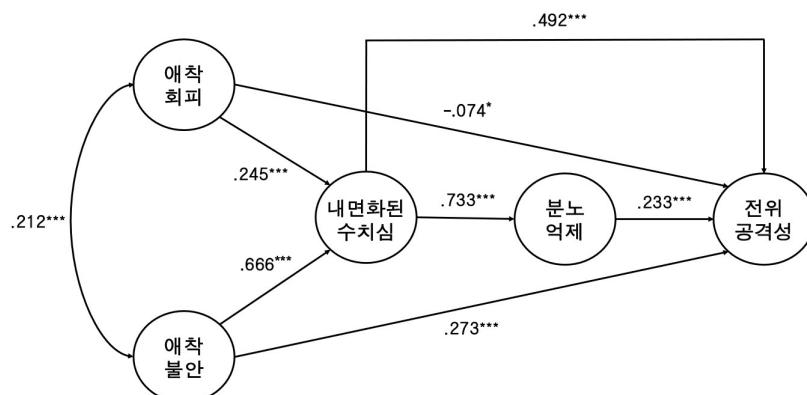
^{*} $p<.05$, ^{***} $p<.001$

그림 3. 최종모형

표 5. 잠재변인의 경로계수

	경로	B	β	S.E.	C.R.
애착회피	→ 내면화된 수치심	.240	.245	.034	7.133***
애착불안	→ 내면화된 수치심	.533	.666	.031	17.272***
내면화된 수치심	→ 분노억제	.505	.733	.034	15.007***
애착회피	→ 전위공격성	-.098	-.074	.044	-2.247*
애착불안	→ 전위공격성	.294	.273	.052	5.660***
내면화된 수치심	→ 전위공격성	.662	.492	.093	7.141***
분노억제	→ 전위공격성	.455	.233	.106	4.308***

^{*} $p<.05$, ^{***} $p<.001$

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경로계수는 .245($p<.001$)였으며, 애착불안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경로계수는 .666($p<.001$)으로 나타났다. 즉,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의 수준이 높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면화된 수치심에서 전위공격성의 경로계수는 .492($p<.001$)였고, 내면화된 수치심에서 분노억제의 경로계수는 .733($p<.001$), 분노억제에서 전위공격성의 경로계수는 .233($p<.001$)로 나타났다. 즉, 내면화된 수치심 수준이 높을수록 분

노억제와 전위공격성 수준이 높았으며, 분노억제 수준이 높아질수록 전위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모형의 잠재변인 경로계수는 그림 3과 표 5에 제시하였다.

최종모형을 살펴보면, 애착회피에서 전위공격성으로 가는 직접효과($\beta=-.074$, $p<.05$)의 부호가 두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r=.24$, $p<.001$)와 반대의 부호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의 방향과 매개변인을 투입한 후의 관계가 정반대로 나타날 경우,

억제효과(suppression effect) 가능성을 제시한 선행연구에 의거하여(김영혜, 안현의, 2014; Cohen, Cohen, Aiken, & West, 2002), 애착회피와 전위공격성 사이에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억제의 억제효과 여부를 검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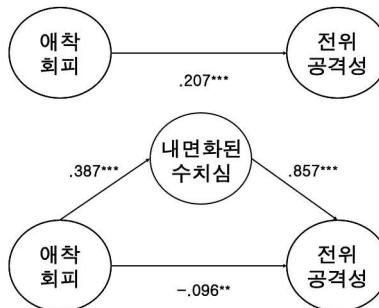
억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에 제3의 변인을 투입하기 전 후의 절대 상관 크기를 비교해 보아야 한다(MacKinnon, Krull, & Lockwood, 2000).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에 매개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절대 상관의 크기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다면 억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조화진, 서영석, 2010). 본 연구에서는 애착회피와 전위공격성의 절대 상관과 그 사이에 매개변인인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억제를 각각 넣은 후 절대 상관을 비교해본 결과, 내면화된 수치심을 투입하기 전과 후의 직접효과는 각각 $\beta=.207(p<.001)$, $\beta=-.096(p<.01)$ 으로, 내면화된 수치심을 투입하기 전(.207)보다 투입한 후(.096)의 크기가 더 작아졌기 때문에 억제효과로 보기 어려웠고(그림 4), 또한 분노억제를 투입하기 전과 후의 직접효과($\beta=.207(p<.001)$, $\beta=.026(p>.05)$) 또한 분노억제를 투입하기 전

(.207)보다 투입한 후(.026)의 크기가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억제효과로 보기 어려웠다(그림 5).

이러한 현상에 대해 Shrout와 Bolger(2002)는 직접효과가 0인 완전매개모형일지라도 표집의 불안정성(sample fluctuation)으로 인하여 직접효과의 부호의 방향이 변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김영혜와 안현의(2014)는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면서, 매개변인 투입 후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관계의 절대값이 감소하였으므로 이러한 현상을 억제효과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매개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하였다. 이에 변인 간 매개효과가 존재하는지 검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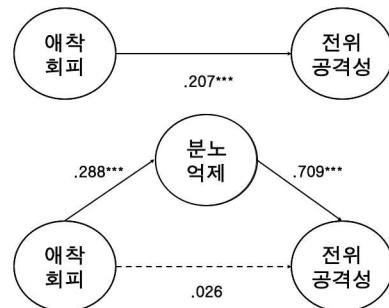
매개효과 분석

변인 간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을 위해,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 절차를 사용하였다. 최종모형은 매개변인의 수가 두 개 이상이기 때문에 개별 간접경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팬텀변인(phantom variable)을 설정하고, 부트스트랩핑을 통해 각



$^{**}p<.01$, $^{***}p<.001$

그림 4. 내면화된 수치심의 억제효과 검증



주.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나타냄.

$^{***}p<.001$

그림 5. 분노억제의 억제효과 검증

표 6. 매개경로 직·간접효과 검증

경로	총 효과	직접 효과	총 간접 효과	개별 간접 효과	95% 신뢰구간	
					최소	최대
애착회피→전위공격성	.088*	-.074	.162***			
애착회피→내면화된 수치심→전위공격성				.159***	.093	.236
애착회피→내면화된 수치심→분노억제				.121***	.082	.165
애착회피→내면화된 수치심→분노억제→전위공격성				.055***	.023	.095
애착불안→전위공격성	.714***	.273***	.441***			
애착불안→내면화된 수치심→전위공격성				.353***	.237	.474
애착불안→내면화된 수치심→분노억제				.269***	.226	.315
애착불안→내면화된 수치심→분노억제→전위공격성				.122***	.055	.195

* $p<.05$, *** $p<.001$

각의 경로의 개별 간접효과를 검토하였다. 부트스트래핑 분석에서 간접경로의 계수가 95% 신뢰 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된다(Shrout & Bolger, 2002). 본 연구는 581개의 표본에서 5,000개의 표본을 재표본화(re-sampling)하였고, 95%의 신뢰구간에서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애착회피에서 전위공격성 경로의 총효과는 유의미하였으며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beta=.088$, $p<.05$). 또한, 애착회피→내면화된 수치심→전위공격성($\beta=.159$, $p<.001$), 애착회피→내면화된 수치심→분노억제($\beta=.121$, $p<.001$), 애착회피→내면화된 수치심→분노억제→전위공격성($\beta=.055$, $p<.001$)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애착불안에서 전위공격성 경로의 총효과가 유의하였으며 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714$, $p<.001$).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애착불안→내면화된 수치심→전위공격성 경로($\beta=.353$, $p<.001$), 애착불

안→내면화된 수치심→분노억제 경로($\beta=.269$, $p<.001$), 애착불안→내면화된 수치심→분노억제→전위공격성 경로($\beta=.122$, $p<.001$)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애착회피 및 애착불안과 분노억제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애착회피 및 애착불안과 전위공격성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애착회피 및 애착불안과 전위공격성 사이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억제가 순차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무고한 사람에게 공격성이 표출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전위공격성의 내적 심리 기제에 관심을 가지고, 불안정 성인애착,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억제와 전위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581명

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AMO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불안정 성인애착과 전위공격성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억제의 순차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기반하여 연구의 의의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불안정 성인애착과 전위공격성의 관계를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억제가 순차매개하는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안정 성인애착과 분노억제의 관계를 내면화된 수치심이 부분매개할 것이라고 예상한 연구모형과 완전매개할 것이라고 예상한 경쟁모형 중 경쟁모형의 적합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최종모형으로 선택되었다. 최종모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애착불안은 전위공격성과 정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애착회피는 전위공격성과 부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착불안과 전위공격성의 정적인 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곽도희, 2018; 안명희, 2010; Ayduk, Downey, Testa, Yen, & Shoda, 1999; Denson et al., 2006; Romero-Canyas, Downey, Berenson, Ayduk, & Kang, 2010; Slotter et al., 2020)와 일치하는 결과로, 개인의 애착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공격성을 표현하지 못하고 엉뚱한 대상에게 공격성이 표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애착회피는 전위공격성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애착회피와 전위공격성의 정적 관계를 보고한 곽도희(2018)의 연구나 애착회피와 전위공격성이 서로 관련이 없다고 보고한 Finkel 등(2007)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애착회피와 전위공격성의 부적 관계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억제

가 매개변수로 투입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억제효과의 결과일 수 있다(Cohen et al., 2002). 이에 억제효과를 살펴보았으나 억제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Shrout와 Bolger(2002)는 실제 직접효과가 없고 완전매개효과가 존재할 경우에도 통계적 인위성(statistical artifacts)이나 우연에 의하여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부적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증명한 바 있다. 이와 동일한 현상이 김영혜와 안현의(2014)의 연구에서 보고되었으며, 이들은 매개변인 투입 후 변인 간 부호의 방향은 달라졌으나 절대값은 작아졌으므로 매개효과의 가능성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억제효과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억제를 투입한 후 불안정 성인애착과 전위공격성 경로의 절대값은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김영혜와 안현의(2014)의 방식을 적용하여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억제는 애착회피와 전위공격성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애착회피 수준이 높은 개인은 높은 수준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억제를 통하여 전위공격성 경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선행연구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 모두 애착회피와 전위공격성의 관계가 일관되지 않고 명료하지 않으므로 추후 연구는 두 변인의 관계에 대해 보다 활발하게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생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전위공격성의 관계를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억제가 순차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불안정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억제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김현주, 이정윤, 2011; 전혜경, 2014; 주선영, 2013), 불안정 애

착과 전위공격성의 관계에서 분노억제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선행연구(이나영 등, 2017; Bushman et al., 2005) 및 애착과 분노억제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김현주, 이정윤, 2011; 조영희, 정남운, 2016)를 통합 및 확장한 것이다. 이는 불안정 애착유형 수준이 높은 개인은 내면화된 수치심으로 인하여 분노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분노를 표현하기보다는 억제하는 전략을 사용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전위공격성을 보이게 됨을 의미한다. 이때, 불안정 애착은 내면화된 수치심을 통해서만 분노억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나, 불안정 애착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분노를 억제하다가 공격성을 부적절한 대상에게 표출하는 과정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중요한 기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불안정한 초기관계로 인하여 전위공격성을 보이는 대학생과 상담할 때 분노억제와 더불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탐색하고 평가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정임을 시사한다.

셋째, 내면화된 수치심은 불안정 성인애착과 전위공격성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애착과 내면화된 수치심에 대한 선행연구(김현주, 이정윤, 2011; 송연주, 2019; 이연규, 최한나, 2013; 전혜경, 2014; 정재익, 양난미, 2019; 조영희, 정남운, 2016; 홍지선, 김수임, 2017; 황지선, 안명희, 2015)와 내면화된 수치심과 전위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류혜진, 백승화, 2020; 임혜은, 한세영, 2016; 한세영, 임혜은, 이은경, 2019; 황지연, 연규진, 2018; Joireman, 2004; Tangney, 199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내면화된 수치심은 불안정 애착과 전위공격성의 관계를 부분매개할 뿐 아니라, 최종모형의 경로계수에서는 애착회피 및 애착불안, 분노억

제에 비해서 전위공격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가지는 부정적인 평가가 전위공격성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변인임을 강조하는 결과로, 생애 초기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여 자신에 대한 수치심을 내면화한 개인은 부정적 자아로 인하여 고통으로부터 회피하고자 하는 방어전략을 자주 사용하며, 분노를 준 대상과 상황에 대해 반추하다가 자기(self)를 해하지 않을 편한 대상에게 공격성을 보이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임혜은, 한세영, 2016).

넷째,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와 전위공격성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억제의 개별간접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애착회피에 비해 애착불안과 전위공격성의 총효과, 직접효과 및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억제의 개별간접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억제는 애착불안 수준이 높은 개인이 전위공격성을 보일 때 더 강력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애착회피의 경우에도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억제는 전위공격성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애착회피와 전위공격성의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고려하면, 제 3의 변인으로 인하여 애착회피가 전위공격성으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애착회피 수준이 높은 개인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뿐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거리를 두는 특성을 가지므로, 본 연구에서 살펴본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억제 외에 타인에 대한 불신, 의심 및 거리감 등이 전위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기제일 가능성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애착회피의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한 변인을 사용하여 애착회피와 전위공격성

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상담 접근에 적용해 보면, 자신의 분노를 엉뚱한 사람에게 부적절하게 표출하는 경향이 있는 대학생 내담자와 상담할 때, 내담자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억제 경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특히, 상담자는 전위공격성을 가진 내담자와 상담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인하여 분노를 적절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내면화된 수치심 수준이 높은 사람은 오랜 기간 부정적인 평가에 노출되어 스스로를 부적절하고 무가치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상담자로부터의 지속적인 지지와 공감, 수용 경험의 필수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 전위공격성 문제를 가진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상담자가 일관성있게 따뜻한 관계 경험을 제공하여 내담자가 경험하는 지지와 공감, 수용이 축적된다면, 전위공격성을 포함한 내담자의 부적응적 대인 관계 양상이 완화되고 일상생활 안에서도 장기적이고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Flores, 2010). 더불어 마음챙김 등 자신에 대해 비판단적인 태도로 바라보고 수용하도록 돋는 훈련이 내면화된 수치심을 경감시키고 전위공격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Goldsmith et al., 2014).

보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상담에서 분노억제에 초점을 둔 개입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내면화된 수치심의 완화는 장기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상담목표로 단기간에 습득하기 어렵다. 보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내담자가 자신의 분노를 무관한 대상에게 분출하기 이전에 자신의 분노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돋고, 경험한 분노를 적응적인 방식으

로 표출할 수 있도록 돋는 개입이 도움이 될 것이다(정세련, 이승연, 2020). 분노억제 경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타인에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는 경향이 있으므로(구본용, 백승아, 2019),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감정 표현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을 확인하고 다루어 정서 인식과 표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여주와 윤서연(2018)이 제안한 바와 같이, 상담장면에서 분노 억제 상황을 상상하고 상상기법이나 주의분산법,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등의 다양한 인지행동치료 기법을 훈련함으로써 분노경험 및 표현에 대한 관점을 수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과정이 전위공격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분노 표출이 발생하는 전위공격성 개념을 개인 내적인 변인들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그 심리적 기제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전위공격성과 관련된 연구는 국외에서 비교적 최근에 개념화되기 시작하였고, 국내에서도 관련된 연구가 최근에 시작되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곽도희, 2018; 류혜진, 백승화, 2020; 박보람, 2017; 서민재, 박기환, 2013; 신주애, 조한익, 2019; 신현경, 이승연, 2016; 이나영 등, 2017; 이하나, 2009; 임유빈, 한유진, 2021; 임혜은, 한세영, 2016; 정세련, 이승연, 2020; 최영, 김현수, 2018; 한세영 등, 2019; 황선주, 박기환, 2014; 황지연, 연규진, 2018). 본 연구의 결과는 전위공격성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더하여 그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위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변인들에서 벗어나 개인 내적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응답자가 사용한 PC의 종류나 적응도의 차이, 설문 디자인이나 문항 수, 접속 속도와 같은 인터넷 환경의 차이로 인해 응답의 정확성이 달라질 수 있다(김광용, 김기수, 2004; 조성겸, 주영수, 조은희, 2005). 더불어,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므로 연구참여자들의 주관적 이해나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인해 연구참여자의 응답은 실제 행동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분노표현방식이나 전위공격성과 같은 부정적인 특성을 밝혀야 하는 설문 문항에 대해서는 방어적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추후 연구에서는 실험 연구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참여자는 만 18세~29세 대학생으로, 전체 표본의 약 30%가 남성, 70%가 여성이었으며, 약 50%가 수도권, 20%가 대구/경북 지역의 대학생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전국의 대학생이나 일반성인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 연구로 불안정 성인애착,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억제, 전위공격성에 대한 인과적 추론이 어렵다.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적으로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함으로써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애착회피와 전위공격성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의 투입 후 부호가 변화하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Shrout와 Bolger(2002)의 제안처럼 표집의 불안정성이나 우연으로 인한 효과일 수 있지만, 애착회피의 성격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한 환경적 요인이나 친밀감의 부재 및 인적자원의 부족, 자아존중감

등 제 3의 변인의 영향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연구는 애착회피과 전위공격성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을 포함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미애 (2016). 내면화된 수치심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불안정 성인애착과 반추적 반응의 매개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곽도희 (2018).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전위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본용, 백승아 (2019).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분노표현방식과 인지적 정서조절의 매개된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20(2), 281-301.
- 긠태정, 정은정 (2020).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전위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6), 609-622.
- 김광용, 김기수 (2004). 인터넷 설문조사의 방법론적인 문제점과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개인화된 인터넷설문조사 시스템의 구축. 품질경영학회지, 32(2), 93-108.
- 김미림, 홍혜영 (2013). 중학생의 수치심 경향성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1), 135-156.
- 김영혜, 안현의 (2014). 대학생의 부모-자녀 유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진로결정 관계에서 성취압력 및 진로결정자기효능

- 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3), 657-684.
- 김용태 (2010). 사회-심리적 특성으로서 수치심의 이해와 해결. *상담학연구*, 11(1), 59-73.
- 김용희 (2017). 대학생의 애착과 분노경험의 관계: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4(2), 559-582.
- 김해진, 신현균, 홍창희 (2008). 성인애착유형, 특성분노 및 음주문제의 관계-분노표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3), 729-748.
- 김현주, 이정윤 (2011). 청소년의 애착과 분노 표현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2(3), 965-981.
- 류혜진, 백승화 (2020). 내면화된 수치심이 전위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상담심리교육복지*, 7(2), 141-154.
- 문소현, 안효자 (2012).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관계가 분노와 분노 표현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13(1), 33-43.
- 문형춘 (2007). 내담자 성인애착 특성에 따른 내담자 및 상담자의 내현적 대인반응과 회기 성과.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보람 (2017). 거부민감성이 전위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의 매개효과.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병렬 (2017). Amos 24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 도서출판 청람.
- 서민재, 박기환 (2013). 전위공격성과 심리적 안녕감, 자아존중감, 신체화 및 우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1), 163-181.
- 송연주 (2019). 관계중독에 대한 개념 및 국내 연구 동향 분석. *기족과 가족치료*, 27(4), 699-721.
- 신선지, 백용매 (2017). 복합외상 경험의 역기능적 분노표현 양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3(2), 349-371.
- 신종철 (2018. 10. 25). 오신환 “묻지마 우발적 범죄 매년 지속발생, 대책 마련 시급”.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9>에서 검색.
- 신주애, 조한익 (2019). 내현적 자기애와 전위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교육치료연구*, 11(2), 163-179.
- 신현경, 이승연 (2016).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전위된 공격성의 관계: 분노억제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배척 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학회*, 23(10), 259-285.
- 안명희 (2010).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정서와 심리적 통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4), 867-885.
- 윤진우 (2020. 02. 17). 강서구 'PC방 살인' 김 성수 징역 30년 확정.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21722637>에서 검색.
- 이나영, 하수홍, 장문선 (2017).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성인기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분노억제와 전위공격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2), 203-222.
- 이연규, 최한나 (2013).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사회불안의 관계: 대인존재감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4(2), 21-42.
- 이인숙, 최해림 (2005).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ISS)의 타당화 연구-애착, 과민성 자기애,

- 외로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51-667.
- 이지영, 손정락 (2009). 대학생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성인애착 및 역기능적 분노표현과의 관계. *스트레스研究*, 17(1), 81-89.
- 이진, 송미경 (2017).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우울의 관계: 역기능적 분노표현방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29(2), 409-428.
- 이하나 (2009). 전위된 공격성 집단의 특성에 관한 탐색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명수 (2021. 06. 07). 분당 택시기사 살인… “조건만남 여성 살해 계획 틀어지자 분풀이”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0716530003446>에서 검색.
- 임유빈, 한유진 (2021). 중학생의 거부민감성과 내현적 자기애가 전위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지위불안감의 매개효과. *가정과삶의질 연구*, 39(1), 1-15.
- 임정우, 홍혜영 (2016).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매개변인으로.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14(1), 63-75.
- 임혜은, 한세영 (2016). 학령후기 아동의 내현적 자기애가 전위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과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7(4), 129-143.
- 전겸구, 김교현 (1997). 분노, 적대감 및 스트레스가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79-95.
- 전겸구, 한덕웅, 이장호 (1997).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XI-K): 대학생 집단.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3(1), 18-32.
- 전혜경 (2014). 대학생의 애착과 우울 간 관계에서 분노표현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2(1), 173-199.
- 정세련, 이승연 (2020). 남자 중학생의 또래괴롭힘 피해경험과 전위된 공격성의 관계: 거부 민감성, 남성 성역할 갈등의 이중매개효과 및 비판단 성향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3(2), 49-68.
- 정여주, 윤서연 (2018). 분노표현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 *열린교육연구*, 26(3), 159-180.
- 정의중, 이지언 (2012). 학대와 따돌림이 청소년기우울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3(2), 217-242.
- 정재익, 양난미 (2019). 대학생의 불안정 애착과 사회불안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자비의 순차적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7(2), 23-52.
- 정해숙, 정남운 (2011).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분노표현양식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2(2), 89-107.
- 조성겸, 주영수, 조은희 (2005). 인터넷 여론조사의 정확도 관련요인. *조사연구*, 6(2), 51-74.
- 조영희, 정남운 (2016). 성인애착, 기본심리적 욕구 만족,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1), 169-190.
- 조화진, 서영석 (2010). 부모애착, 분리-개별화, 성인애착, 대학생활적응, 심리적 디스트雷斯의 관계-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385-411.
- 주선영 (2013). 대학생의 불안정 애착과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

-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수정, 이동훈 (2019).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4(1), 69-93.
- 최영, 김현수 (2018). 초기 청소년의 학대경험과 사이버불링 경향성의 관계에서 전위공격성의 매개효과. *가족과 가족치료*, 26(3), 321-341.
- 한세영, 임혜은, 이은경 (2019).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전위된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6(4), 139-157.
- 홍지선, 김수임 (2017). 국내 수치심 연구 동향: 주요 상담학술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8(6), 133-158.
- 황선주, 박기환 (2014). 우울-품행장애성향 청소년의 전위공격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4), 1125-1147.
- 황지선, 안명희 (2015). 성인애착이 거절민감성에 미치는 영향: 외로움과 수치심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6(1), 1-20.
- 황지연, 연규진 (2018). 내면화된 수치심과 전위공격성의 관계: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3(1), 147-166.
- Ayduk, O., Downey, G., Testa, A., Yen, Y., & Shoda Y. (1999). Does rejection elicit hostility in rejection sensitive women? *Social Cognition*, 17(2), 245-271.
- Berkowitz, L. (1990). On the formation and regulation of anger and aggression: A cognitive-neoassociationistic analysis. *American Psychologist*, 45(4), 494-503.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a loss* (Vol. 2).
- New York, NY: Basic Books.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ad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 46-77). New York, NY: Guilford.
- Bushman, B. J., Bonacci, A. M., Pedersen, W. C., & Vasquez, E. (2005). Chewing on it can chew you up: Effects of rumination on triggered displaced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6), 969-983.
- Cohen, J., Cohen, P., Aiken, L. S., & West, S. G. (2002). *Applied multiple regression 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3rd ed.). Mahwah, NJ: Lawrence Erlbaum.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4), 644-663.
- Cook, D. R. (1987). Measuring shame: The internalized shame scale. *Alcoholism Treatment Quarterly*, 4(2), 197-215.
- Cook, D. R. (1991). Shame, attachment, and addictions: Implications for family therapist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13(5), 405-419.
- Cook, D. R. (2001). *Internalized Shame Scale: Technical manual*. New York, NY: Multi Health System Inc.
- Denson, T. F., Pedersen, W. C., & Miller, N. (2006). The displaced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6), 1032-1051.
- Dollard, J., Doob, L. W., Miller, N. E., Mowrer,

- O. H., & Sears, R. R. (1939). *Frustration and aggressio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Finkel, E. J. (2014). The I^3 model: Metatheory, theory, and evidence.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9(6), 1-104.
- Finkel, E. J., Burnette, J. L., & Scissors, L. E. (2007). Vengefully ever after: Destiny beliefs, state attachment anxiety, and forgiv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5), 871-886.
- Flores, P. J. (2010). 애착장애로서의 중독 (김갑중, 박춘삼 역). 서울: NUN. (원전은 2004에 출판)
- Gilbert, P., Allan, S., & Goss, K. (1996). Parental representations, shame interpersonal problems, and vulnerability to psychopathology.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e*, 3(1), 23-34.
- Goldsmith, R. E., Gerhart, J. I., Chesney, S. A., Burns, J. W., Kleinman, B., & Hood, M. M. (2014) 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for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building acceptance and decreasing shame. *Journal of Evidence-Based Complementary & Alternative Medicine*, 19(4), 227-234.
- Gross, C. A., & Hansen, N. E. (2000). Clarifying the experience of shame: the role of attachment style, gender, and investment in relatedn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8(5), 897-907.
- Joireman, J. (2004). Empathy and the self-absorption paradox II: Self-rumination and self-reflection as mediators between shame, guilt, and empathy. *Self and Identity*, 3(3), 225-238.
- Kairy, S. W., & Johnson, C. F. (2002). The psychological maltreatment of children-technical report. *Pediatrics*, 109(4), 1-3.
- Leary, M. R., Koch, E. J., & Hechenbleikner, N. R. (2001). Emotional responses to interpersonal rejection. In M. R. Leary (Ed.), *Interpersonal rejection* (pp. 145-166).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Lewis, H. B. (1971). Shame and guilt in neurosis. *Psychoanalytic Review*, 58(3), 419-438.
- Lewis, M., Alessandri, S. M., & Sullivan, M. W. (1990). Violation of expectancy, loss of control, and anger expressions in young infa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6(5), 745-751.
- Lopez, F. G., Gover, M. R., Leskela, J., Sauer, E. M., Schirmer, L., & Wyssmann, J. (1997). Attachment styles, shame, guilt, and collaborative problem solving orientations. *Personal Relationships*, 4(2), 187-199.
- MacKinnon, D. P., Krull, J. L., & Lockwood, C. M. (2000). Equivalence of the mediation, confounding and suppression effect. *Prevention Science*, 1(4), 173-181.
- Meesters, C., & Muris, P. (2002). Attachment style and self-reported aggression. *Psychological Reports*, 90(1), 231-235.
- Mikulincer, M. (1998). Adult attachment style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functional versus dysfunctional experiences of ang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2), 513-524.
- Mikulincer, M., Shaver, P. R., & Peregrine, D. (2003). Attachment theory and affect regulation: The dynamics, development, and cognitive

- consequences of attachment-related strategies. *Motivation and Emotion, 27(2)*, 77-102.
- Miller, N., & Marcus-Newhall, A. (1997). A conceptual analysis of displaced aggression. In R. Ben Ari & Y. Rich. (Eds.), *Enhancing education in heterogeneous schools: Theory and application* (pp. 69-108). Ramat-Gan, Israel: Bar-Ilan University press.
- Miller, N., Pedersen, W. C., Earlywine, M., & Pollock, V. E., (2003). A theoretical model of triggered displaced agg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7(1)*, 75-97.
- Romero-Canyas, R., Downey, G., Berenson, K., Ayduk, O., & Kang, N. J. (2010). Rejection sensitivity and the rejection-hostility link i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78(1)*, 119-148.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pp.18-29.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lotter, E. B., Grom, J. L., & Tervo-Clemmens, B. (2020). Don't take it out on me: Displaced aggression after provocation by a romantic partner as a function of attachment anxiety and self-control. *Psychology of Violence, 10(2)*, 232-244.
- Spielberger, C. D., Krasner, S. S., & Solomon, E. O.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 P. Janisse (Ed.). *Health Psychology: Individual differences and stress* (pp. 89-108). New York, NY: Springer Verlag.
- Spielberger, C. D., Reheiser, E. C., & Sydeman, S. J. (1995). Measuring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ssues in Comprehensive Pediatric Nursing, 18(3)*, 207-232.
- Tangney, J. P. (1992). Situational determinants of shame and guilt in young adulthood.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2)*, 199-206.
- Tangney, J. P. (1998). How does guilt differ from shame? In J. Bybee (Ed.), *Guilt and Children* (pp. 1-17). Cambridge, MA: Academic Press.
- Tangney, J. P., Wagner, P., Fletcher, C., & Gramzow, R. (1992). Shamed into anger? The relation of shame and guilt to anger and self-reported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4)*, 669-675.
- Tangney, J. P., Wagner, P. E., Hill-Barlow, D., Marschall, D. E., & Gramzow, R. (1996). Relation of shame and guilt to constructive versus destructive responses to anger across the lifes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4)*, 797-809.
- Vujanović, A. A., Hart, A. S., Poter, C. M., Berenz, E. C., Niles, B., & Bernstein, A. (2013). Main and interactive effects of distress tolerance and negative affect intensity in relation to PTSD symptoms among trauma-exposed adults.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35(2)*, 235-243.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0|재필·초가희 / 대학생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전위공격성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억제의 매개효과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Thousand Oaks, CA: Sage.

원고접수일 : 2021. 09. 24

수정원고접수일 : 2021. 11. 29

게재결정일 : 2021. 12. 22

**Insecure Adult Attachment and
Displaced Aggression of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Internalized Shame and
Anger Suppression**

Jaepil Lee

Keimyung University / Graduate Student

Gahee Choi

Keimyung University / Professor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internalized shame and anger suppre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secure adult attachment and displaced aggression. A total of 581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online survey, and the AMOS program was used for data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d that (a) insecure adult attachmen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displaced aggression, (b) internalized shame complete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secure adult attachment and anger suppression and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secure adult attachment and displaced aggression, and (c) internalized shame and anger suppression had serial mediation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secure adult attachment and displaced aggression. The results suggest that counselors working with clients with displaced anger should utilize strategies that reduce clients' internalized shame. Clinical intervention should help clients to appropriately perceive and express their anger in order to break the negative cycle of repressing and exploding anger.

Key words : insecure adult attachment, internalized shame, anger suppression, displaced aggression, serial mediation effects